



역사의 종말?

안종철

1.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 - 경제적 난국과 국민정신의 타락

1997년의 파사로운 관악의 봄이다. 대학을 들어온 지도 어언 8년이 지났다. 그간 지식이 많이 자랐고 남을 이해해 보려는 초보적인 대화의 기술도 배웠다. 그러나 개인적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기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한국에서 시민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임을 생각할 때, 주변의 세상 돌아가는 일을 관심 있게 지켜 볼 필요가 더욱 절실해 진다. 그래야만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지 않고 이 땅에 발을 단단히 붙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라는 것이 어디의 집값이 얼마이고 어떻게 하면 안정된 직장을 얻어 돈을 잘 벌 것인가와 동의어가 된다. 그런 감각을 획득하는 것이 한국 사회, 아니 서울 시민이 되는 자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좀 씩씩하다.

아직도 나는 우리 사회 시민의 일원이 되기에 부족한가? 왜냐하면 내게는 여전히 '한국 사회가 어떤가' 하는 추상적인 답론이 관심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때로는 부끄러움이 든다.¹⁾ 그러나, 어쩌면 김영삼 정부의 가장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식인의 전반적인 고민의 대상이었다고 할 '전체로서의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시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각인 시켜 두었음을 생각할 때 그리 자괴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다른 한쪽에 자리 잡는다.

현재 한국은 대단히 중요한 위기를 맞고 있다. 먼저 경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볼 때 그렇다. 1996년부터 각종 잡지와 신문들은 삼성의 반도체 붐을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의 경제는 쇠퇴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컴퓨터 등의 첨단산업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있다.²⁾

여기서 현재 한국의 산업에 대해 간단히 짚어 보기로 하자.³⁾ 지난 60년대부터 경공업(신발, 섬유, 가발 등)에서 출발한 한국 경제는 이제 이 부분에서 중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후발 동아시아 국가에 의해 대부분의 지반을 잃었다. 산업 구조의 차원이 달라졌기에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사장된 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은 철강 산업, 반도체 램, 조선, 자동차 등이 주축 산업으로 가지고 있다. 철강 사업은 포항제철이 비교적 기반이 튼튼하나 국제적인 시세가 좋지 않아서 한보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⁴⁾ 반도체 램 생산은 주지하다시피 시장의 문제로 생산이 익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불효자처럼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되었다. 자동차 산업은 알다시피 가장 중요한 기술인 엔진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한국 경제로 봐서는 별반 이득이 없다. 자동차 판매가 늘어날수록 석유 수입이 더 확대되는 모순된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을 볼 때 그리 가치 있는 산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사업도 경기 변동을 많이 타고 큰 효율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중국과 멀티미디어 등의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구조조정을 한 일본의 사이에서 한국은 어떻게든 자리매김을 요청받고 있다.

그러면 소위 '문화민족'인 우리의 관광산업은 어떤가? 한국의 아팠던 역사적 경험(임진왜란, 병자호란, 식민지 시기, 한국전쟁 등)으로 볼 만한 유적이 없기에⁵⁾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지 못한다고 생각이 된다.⁶⁾ 즉 관광상품의 문제는 상당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을 운영하는 주체문제로 돌아가 보자.

산업을 중심인 대기업들은 국가 경제에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해를 끼친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이다. 산업 기술 축적보다는 단기간의 이득을 올리는데 더 큰 관심을 가져왔다. 대표적으로 땅투기를 통해 서민들의 생활을 압박해 온 것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 기반을 통제하고 지도하는 한국의 정치가 경제 기반을 더 취약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인식을 지우기 힘들다. 한보사건을 볼 때 정치가 얼마나 경제에 깊게 개입했던 가를 알 수 있다. (그 반대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경제의 효율성을 조직해 내는 것을 도와야 할 판국인데 무분별하게 확장을 가하는 데 일조하고 정치권이 깊게 개입한 것은 아무리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정치권과 결탁해서 무리한 확장을 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크긴 하지만 역사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것을 볼 때 인간들이 더 문제를 일으키고 구조적인 문제 차원으로 도피한다는 것은 이제는 어불성설이라고 하겠다.

한국에서의 환경문제는 가히 끔찍하다. 신문에 보이는 순수한 환경 운동의 모습들은 가끔씩 산에서 울려오는 메아리 소리에 다름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프랑스의 모 어휘 사전에는 'seoulization' 이라는 단어가 '무분별한 개발과 단기간에 걸친 도시화로 야기되는 복잡한 문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실려있다고 한다.

여기에 덧붙여 좁전에 제기한 서울의 땅값 문제는 서울에서 기반이 없는 젊은 사람을 '도시의 빈민'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여전히 서울이 주는 문화적 매력과 경제적 이득을 육체적인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지킬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기반을 잡지 못한 사람들의 서울에서의 '비인간화'현상 내지는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삭막한 서울 창조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필히 단기간의 '자본축적'을 추구하는 보통 사람들의 심리를 구성한다. 비대한 도시화와 환경문제, 산업 기반의 취약은 여러모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한국인들(특히 대학의 학생)의 정신적인 타락과 연결되는 복잡한 고리를 형성한다.(무엇이 먼저냐는 것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논쟁이다.) 최근 90년대에 들어 한국 사회에서 세계적인 전환과 맞물려 이념의 사회변혁성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 그리하여 저항 하부 문화를 형성했던 한국 대학 사회의 문화는 급격히 해체되어지고 얇은 사회적 기반으로 말미암아 '대학생'이라는 것은 어느덧 사회 진출의 교두보로서의 알팍한 역할을 가지게 된다. 대학은 더 나은 직업을 선택하고(사회적인 강요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준비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사회 봉사'를 추

구하는 학생들은 특수한 정신 상태의 소지자로 취급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무관심하다.

한국에서 대학의 기원은 멀리는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가지만 실제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일제시대의 가치관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 즉 몇 가지 직업의 우월성에 모든 것을 걸고 그리로 모두가 모이게 된다.(특히 관료나 법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다. 유교적인 가치관인 사농공상의 차별의 변형에 다름이 아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실제 그 직업의 사회적 기여도와는 별도로 선호하는 학과나 직업에 몰려들며, 자신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우면 자식만은 되어야 한다는 일념을 가지고 교육에 몰두한다.

한국에서의 사교육의 병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작년을 예로 들면 공교육비가 10조원이라면 사교육비는 20조원이라고 하듯이 가히 짐작하고 남을 만하다.⁷⁾ 어느 정도의 사교육의 불가피성은 인정하고 들더라도 지금의 상황은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을 통해 더 큰 문제 '사회 공동체'라는 관념이 부재한 상태를 초래한다.

한국에서 적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민족'이라는 두 글자가 맡아 왔었다. 이는 70, 80년대 해외에서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의 감정 섞인 목소리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으로 시작되는 멘트에 뜬눈으로 TV를 지켜봤던 한국인들이 오늘날에도 견재하고 있기에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하면 알 것이다. 이는 구미에서 오랜 역사를 통해 '사회'나 '개인'간의 관계를 치열하게 논의해 온 것과는 대조적이지만 뭔가 나름의 의식상에서 통합점이 있어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말만 '같은 민족', '같은 동포'이지 한국은 실제로는 수많은 통합되지 않은 적대적인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사교육비의 증대가 자식교육을 통해 이러한 역할을 강화해 온 것과 함께 국민 분열의 더 큰 이유로서 문민정부에서 내세운 '국제화', '세계화'의 구호(지금 그것은 통치이데올로기에 다름 아님이 판명되었다.)가 한국 사람들을 호도한 것을 들 수 있다.

93년 이후 한국의 외채 수입이 엄청나게 늘고 외화 낭비가 커졌다. 국가에는 구심점이 없다. 뭔가 자국에 축적되는 '국제화'가 아닌 외국에 달러를 가져다가 쓰는 것이 중심이 되었다. 정신적으로 타락하며 힘든 일을 기피하게 되었다. 한편 대학에서 영어 공부의 비중은 늘어나서 더 열심히 회화나 토익 등을 공부하지만 우리말로 사상을 담은 글쓰기 능력은 더 퇴보하는 것은 이의 반증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국제화는 가히 한나라의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이다. 93년 이후 한국은 유엔 비상임이사국과 OECD가입을 추진해 왔다. 국민의 여론을 묻지도 않고 대통령이 마치 자신이 조선 시대의 왕인 것처럼⁸⁾ '우리 한국은 ---에 가입할 것입니다.'라고 뻔뻔스럽게 외쳤다. 아이러니 하게도 당시 외국 언론에서는 유엔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기사를 일면 톱으로 다루고 있을 때였다.⁹⁾ 또한 남미 경제의 어려움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인데 한국 정부는 전세기에 수백 명을 태우고 '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수백 억씩 허비하고 돌아온 것들은 분명히 한국 경제의 주름살을 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¹⁰⁾ 유엔과 OECD가입은 한국이 국제기구에 수백만 달러씩 가져다 바치는 첫걸음일 것이다.

그러한 해외에서의 통치 철학의 '과시'는 국내에서는 어떻게 왜곡되어 나타났는가? 알다시피 은행 돈 4000억원을 다 쓰러져가는 기업에 퍼부어 넣고 그 중에 얼마는 정부의 고위 직책 인사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대통령이 자식을 시켜 대선 자금을 여러 기관으로부터 챙기도록 한 악책들이 공개되

었다. 어김없이 국민의 돈을 가지고 장난친 것이다. 회사원이나 공무원으로 한평생 벌어도 3억이 될까말까 하다고 한다. 하여간 한국 사회의 돈 줄기는 그 흐름이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다. 흔히 농촌 사회에서는 물줄기를 잘 잡아야 하고 산업 금융 사회에서는 돈 줄기를 잘 잡아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돈 줄기의 왜곡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즉 물가의 상승과 화폐 가치¹¹⁾의 저락은 국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것이다.

‘국제화’, ‘세계화’의 구호에 마취되어서 열심히 외국에 나가는 했지만 교포 사회의 분열과 중국 조선족 사기 사건에서 보듯이 분열된 모습을 보여준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자국 중심의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인종적인 ‘한국인’임을 고수하고 있지만 사회 내부의 불만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차원에서의 진정한 ‘사회화’로의 통합의 측면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이는 말로만 한국인의 역사적 유구성이나 ‘근면한 한국인’이라는 이미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아기를 국내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외국에 수출하고, 해외에서 더 무서운 것은 같은 한국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조선족 사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역사적인 방법은 한계를 가지는가?

위에서 한국의 현재 문제에 대해 이것저것 나열했다.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점을 찾는 방법으로 과연 역사적인 인과 고리를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 역사에서는 사람의 책임을 강조하기에 한국의 여러 문제점의 일차적인 책임은 분명 현재의 정권 그것도 김영삼 일 개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만큼 그의 사고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은 나라이기에 김영삼 일개인의 권한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그를 뽑아 준 것도 국민들이었음을 볼 때 국민도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문제는 단순한 정권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물론 올해의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겨울에 있을 대통령 선거이다.) 결국 한 개인의 성격과 행위를 이해하는데 과거의 그의 경험을 살피는 것처럼 한 사회도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은 근대 100년을 쓰라린 경험을 겪으면서 보냈다. 중국과 일본과 제한적인 관계를 맺어 온 조선이 일본에, 그리고 미국과 기타 여러 나라에 문호를 개방한 것이 불과 지금으로부터 120년 정도 전의 일이다. 제국주의 시대에 직면한 조선은 그 나름의 대응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지만¹²⁾ 밀고 들어오는 일본 정부 차원의 침략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¹³⁾

그 결과로 식민지화가 진행되었는데(1910년대) 이 때 사회사적인 변동이 있게 된다. 기존의 조선과 ‘대한제국’이 아직 새로운 관료 체제를 형성하면서 국민을 하나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해 나가기 전에 망했기에 지배 계층의 사람들이 교체되게 된다. 그리하여 이전 시대에 경상, 충청, 경기, 서울권의 양반 관료들이 몰락하고 평안도 지역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력이 형성된다.¹⁴⁾

사회 세력의 변동과 함께 지역 차이로 말미암은 갈등이 임시정부에서도 표출되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점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교육시키면서 ‘당파성’ 론을 만들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세기까지 세계 어느 나라를 들여다보아도 내부의 파벌 투쟁이 없었던 지역은 없다.(신사의 나라 영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국민적인 통합성을 미리 만들어 나가기 전에 일본에 붙어 버리는 세력과 저항 세력으로 나뉘어 지게 되었다. 지식인들의 국내의 출신지역의 차이와 식민지 시기 교육받은 장소의 차이는 한국의 앞날을 암시해 주었다. 대표적으로 이승만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김일성은 만주 지역 일대를 배회했다.¹⁵⁾

한편 더 큰 문제는 일본이 한국 교육의 앞길을 막았던 것이다. 이는 다양한 기술자 계층의 부족과 관련되어서 엘리트들의 식민지 관료(군인, 사무관, 법관)로의 가장 중요한 진출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1945년 해방까지 계속된 사실이고 이는 해방후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사회적인 사실인 것이다. 고시 제도는 조선 시대의 양반 관료로의 진출이라는 특성이 극복되지 못하고 일제 시기를 거치면서 식민지 관료(collaborator-협력자) 창출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해방 이후 북한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군인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갔고 남쪽에서는 경제 관료와 법관으로 대표되는 집단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특히 남쪽은 70년대까지 북한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이 지원한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라인 내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원조 물자를 받아들이면서 정치권과 기업이 그 돈을 나눠 먹는 관행이 생기게 되었다. 한국의 거대 재벌의 출발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대기업이라는 것은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정부 인사와 어깨를 함께하는 튼튼한 구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재벌이 비대해지면서 점차 정치권의 손아귀를 벗어나고자 한 것이 저 유명한 1992년의 정주영의 대선 출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실패한 기업들은 여전히 정부와 손을 잡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한보 사태에서 그것이 파산되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고리를 끊지 못한 김영삼씨의 책임이 있지만 보다 더 심층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의 초보로서 역사의 지식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일제시대 남경 대학살을 겪은 중국은 그 자리를 유리로 덮어서 보이게 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한다. 여기에 비해 한국은 정말 그 쓰라린 역사를 반성할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하겠다.

3. 새로운 대안은 있는가? - 기독교를 중심으로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어쩌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처방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그 자체도 힘들지만 그것이 실천될 것인가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다. 특히 사회의 선진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삶과 언어(말)의 관계를 들 수 있다. 그것이 일치에 가까운 사회는 선진 사회에 근접한 것이다. 즉 이는 실천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문제의 해결책은 너무나 복잡하기에 단순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해결책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절대로 현명한 자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것으로 그 사람을 밀어 주는 것을 그치지 않으면 안된다.¹⁶⁾ 특히 한국에서 기독교 이해와 관련된 문제로 기독 신자가 대통령이 되면 마치 하늘 나라가 이 나라에서 이루어질 듯이 기도하고 기대해서는 곤란하다. 신자가 아니지만 더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 신자=성인,

비신자=멸망의 자식, 죄인이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신자를 욕하는 것이 아닌 어쩌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된다.

둘째 사회의 공동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의 기초로서 평소에 습관처럼 인사 나누기와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맞아 주는 정성(friendship)을 길러야 한다. 그것이 출신지역 차이, 경제적 차이, 신체적 불편 등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라고 생각한다. 생활 가운데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불의한 일에는 개입하지 않을 용기와 정당한 일에 분을 내는 의로움을 길러야 한다.

이는 세 번째로 한국 사회에서의 건전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특히 역사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매우 국수적인 생각은 경계해야 한다. 한국이 우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옆에 보는 한국인에게 사기쳐서 돈을 벌려는 자세는 대표적이다.¹⁷⁾ 한국 사회를 저주하면서 돈이 있다고 외국에 가서 즐기려고만 하는 자들을 경계 해야 한다. 특히 자기들이 가진 부가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고 협력의 정신을 도모해야 한다. 한국의 민족주의 정신의 약화는 외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미국 교포 사회의 분열성과 자기 방어 능력의 약화는 대표적인 것이다.

건전한 민족주의는 사회내부에서 합리적인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갈등해소의 제도적인 차원이 마련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넷째 창조성을 기르는 교육 활동과 삶의 방식이다. 교육적인 파행성은 익히 알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되지만 특정 부분은 더 낮고 다른 부분은 낮은 수준의 일이라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창조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을 격려해 주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반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것은 이원론의 극복 문제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정당한 신학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따라야 하고 교회 교육 차원에서 깊게 검토해 봐야 하는 문제이다. 한국인들이 재능이 많은 민족임에 틀림없지만 정당한 직업 윤리와 창조적인 교육이 안되면 결국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프로 의식이 상실되어 사회 봉사로서의 직업의 의미가 없어 질 것이다.

교회가 복음주의적 정신이 상실될 때 매주일의 모임이 오히려 서로의 욕심을 부추기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깊게 반성해야 한다.

1) 자신에 대해 돌아보지 못하면서 사회나 정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신종병을 '임격정병'이라고 한다.
2) 최근 많은 외국 잡지들의 주된 이슈는 'Multimedia' 에 관한 것이다. 미국 사회의 첨단 산업화로의 진행과 그 사회적 파장에 대해 논한 책 중 중요한 것으로 최근 번역된 제레미 리프킨의 저서 [노동의 종말(The End of Work)], 1996, 민음사를 거론할 수 있다. 동아시아 경제의 침체는 최근 외국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기사인데 최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것이나 (MIT 교수 폴 크루그먼), 경기 변동의 단순한 반영인가 (하버드대학 제프리 삭스)라는 논쟁이 있다.
3) 이 부분은 한국 신문(동아, 한겨레)과 잡지(한겨레 21), Time誌와 '한국 경제사'에 대한 강의 노트 등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기에 일일이 근거들을 적지는 않았다.
4) 사실 한보사태의 근본 원인은 국제적 철강 시장에서 공급측면의 악화로 인한 타격이었다는 것을 명심해 두어야 한다. 이리하면 某기업들이 제철 산업에 손을 댄다던가, 자동차 생산에 뛰어들든 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5) 오히려 역사적인 경험 보다가 무분별한 개발로 더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세계의 상당수의 나라들이 이 정도의 혹독한 경험을 적어도 한차례씩은 가지고 있기에 한국의 독자적인 역사적 경험만으로 이 문제를 합리화 할 수 없다.

- 6) 필자는 아꼈던 경험의 역사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총독부 건물의 '이전'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건물은 일본에도 몇 개 남아 있지 않은 고풍스러운 작품이다. 궁정동 안가 건물도 밀랍 인형을 만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장면을 박물관으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이 자리는 재개발이 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 7) 잡지 WIN誌(중앙일보사) 4월 21일 COVER STORY
- 8) 실제 조선 시대 왕도 독자적인 폭이 그리 크지 않았다.
- 9) Time誌 1995년 10월 COVER STORY 참조
- 10) 아마 그 액수는 한국 기업이 열심히 남미에 물건을 가져다 팔아도 만회하기 힘든 액수가 아닌가?
- 11) 이 글이 나온지 7개월이 지난 12월 5일 한국은 치욕적인 IMF 관리체제로 들어가게 되었고 엄청난(2배 이상) 화폐가치 하락(원화절하)을 맞보았고 20% 이상의 인플레이(체감)를 겪고 있다.
- 12) 최근 새롭게 발견된 '역사적 사실' 중에서 개항 특히 일본과 미국등과의 개항은 조선정부(국왕)의 다양한 정보 축적의 바탕 위에서 한계는 있지만 자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목을 요하는 사실이다.
- 13) 일본이 조선을 대상으로 여러 조약을 강제하고 기타 외국에는 여러 가지 로비 활동을 통해 그것을 합리화했다는 것도 주목할 역사적인 사실이다.
- 14) 김일성, 안창호, 이승훈, 이광수, 홍명희 기타 등등의 식민지 시기의 언론과 문필 활동, 사업가들의 상당수가 이 지역 출신이다. 이들의 후임들은 해방 후 이승만 정권 당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 15) 이승만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최근 유명익 선생의 이승만 일대기 (중앙일보사)가 불만한 것이고 김일성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되어야 하겠지만 와다 하루끼, 김일성과 만주항쟁, 창작과 비평사, 1995와 서대숙, 김일성 연구, 하와이 대학 등을 들 수 있다. 두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한국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 16) 네델란드의 수상을 역임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야기는 귀담아 들을 만하다. 그는 기독교인이 정치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기독교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17) 아이러니칼하게도 평소에는 국민들에게 관심이 없다가 급할 때는 민족주의적인 감정에 호소하여 돈을 벌려는 자가 많다.